

##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2003년 9월

### 1. 조사 목적

(1) 일본국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정당한 호칭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그 주요 논거로서는 아래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가) [일본해]라는 호칭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

(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해 있었다는 점.

(다) 지리적 명명법에서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점.

(2) 상기 (나)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토 지리원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주 1). 이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주 1: 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해 팜플렛 참조.

(3) 일본 외무성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에서 특히, 19세기 초엽에서 중기까지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 중 [일본해]라는 호칭의 정착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또한, 이번 조사 배경에는 한국 측의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예사롭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함에 있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에 관한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1801년부터 1861년 사이에 발행된 지도에 대해서는 대영 도서관에는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를 1점도 소장하고 있지 않았으며(주 2), 캠브리지 대학에는 6점 뿐(그 중 5점이 [조선해], 1점이 [일본해])인(주 3) 것으로 되어 있었다.

주 2: Lee Ki-suk, Kim Shin, Soh Jung-chul, “East Sea in World Maps”, The Society for East Sea, (Seoul: 2002) pp.95-112

주 3: ibid.pp.113-126

### 2. 조사 개요 및 결과

(1) 조사 개요

일본 외무성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6월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재영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소장품 목록 등을 활용하여, 1801년부터 1861년 사이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 주변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도들을 조사하였다.

(나) 조건에 해당하는 지도를 실제로 열람하여 일본해에 관한 기재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 열람한 지도의 리스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각각의 지도 사진을 입수하였다.

##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대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

(i) 대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01년부터 1861년에 걸쳐 발행된 고지도 중에서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는 37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주 4). 이는 대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같은 시기에 발행된 고지도가 0점이었다라는 한국 측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ii) 이들 37점 중에서, 32점에서 발행국의 언어로 [일본해](Sea of Japan, Mer du Japon 등)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중, 5점에서 [조선해](Gulf of Corea, Mer de Coree 등)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리스트: 별첨 1). 또한, [동해](East Sea)라고 기재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iii) 이 37점의 발행국은 영국이 15점, 프랑스 10점, 독일 7점, 이탈리아 2점,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일본이 각 1점이었다.

(나)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

(i)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1801년부터 1861년에 걸쳐 발행된 고지도 중에서, 일본해 주변을 포함하는 지도가 21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주 5). 이 정도,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는 같은 시기에 발행된 고지도가 6점뿐이라는 한국 측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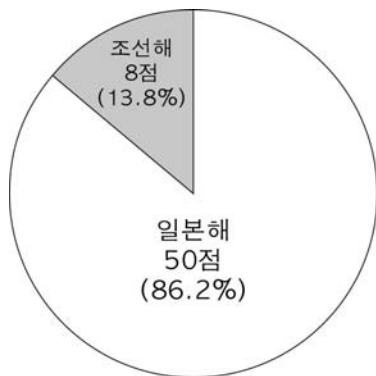
(ii) 이들 21점 중에서, 18점에는 발행국의 언어로 [일본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3점에는 [조선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리스트: 별첨 2). 덧붙여서 [동해](East Sea)라고 기재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iii) 이들 21점의 발행국은 영국이 10점, 프랑스가 4점, 독일 3점, 이탈리아 2점, 네델란드 1점, 일본이 1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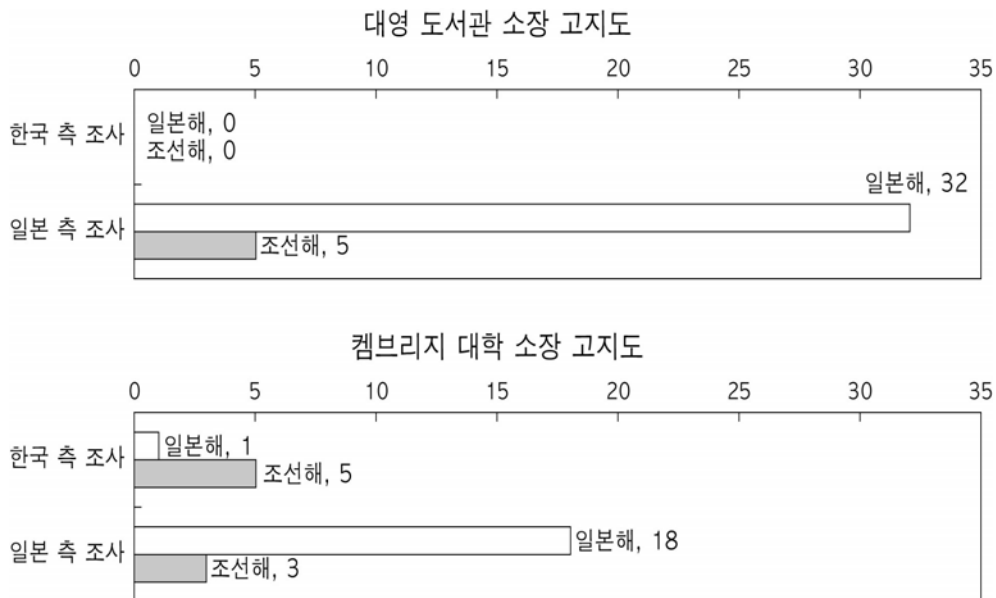
(다) 조사 결과를 지도 발행 연대별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이로하여, 19세기 초엽부터 중엽에 걸쳐 유럽 각국에서 발행된 지도에서 [조선해]의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9세기 최초의 10년 간이었으며, 그 이후는 [일본해]라는 호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 측 조사와 일본 측 조사의 차이를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1)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 결과 (발행 연대순)

		1801~ 1810년	1811~ 1820년	1821~ 1830년	1831~ 1840년	1841~ 1850년	1851~ 1860년	합계	비율
대영도서관	일본해	2	6	3	7(주 6)	5	9	32	86.5%
	조선해	4	-	-	-	1	-	5	13.5%
캠브리지 대학	일본해	2	3	3(주 7)	5	1	4	18	85.7%
	조선해	-	1	1	-	-	1	3	14.3%
합계	일본해	4	9	6	12	6	13	50	86.2%
	조선해	4	1	1	0	1	1	8	13.8%



(표 2)



주 4: 대영 도서관 목록 상으로는 해당 지도 또는 지도책이 36 점/권이었으나, 중복된 지도가 1 점 있어서 이를 제외하였다. 또, 일본해 주변의 지도를 2 점 게재한 지도책이 2 권 있었으나, 각각의 지도책을 1 점의 지도로 간주하여서 총 합계가 37 점이 되었다.

주 5: 캠브리지 대학의 목록 상으로는 해당 지도 또는 지도책은 25 점/권이었지만, 중복된 지도가 4 점 있어서 이를 제외하였다.

주 6: 발행 연대가 1833-1853 년 사이로 밖에 특정할 수 없는 2 점의 지도에 대해서는 편의상 1831-1840 년 란에 넣었다

주 7: 발행 연대가 1830 년으로 추정되는 1 점의 지도는 편의상 1821-1830 년 란에 넣었다.

### 3. 결론

이번 일본 측 조사를 반영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이번 조사에서는 검증하지 않았지만, 18 세기 말 이전에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으로서 [일본해], [조선해], [동양(오리엔트) 해](주 8)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 같다. 이는 일본 측 학자가 일본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발행된 고지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분명하였다(일본 외무성 작성 팸플릿 “Sea of Japan” 참조).
- (2) 이번 일본 측 조사에 의하여, 18 세기 말 이후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대영 도서관 소장 고지도에서는 86.5%에 해당하는 32 점이,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에서도 85.7%에 해당하는 18 점에 [일본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3) 따라서,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유럽에서 발행된 고지도 조사를 통하여,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 있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8 세기 말부터 19 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 정착한 것이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확인되었다. 덧붙여서,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 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주 8: 다만, 18 세기 이전의 고지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양(오리엔트) 해]라는 명칭은, [서양해]에 대한 [동양해]의 의미로서, 이를 [동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한국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